

전북대, 모바일 보안시스템 특허 기술이전

보안솔루션 분야 선도기업 아이티스테이션과 협약... 기업 사업화 성공 위해 적극 지원키로

전북대학교 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센터장 조기환)가 19일 보안솔루션 분야의 선도기업인 (주)아이티스테이션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는 '모바일 기반의 공공안전 보안 시스템' 특허기술(발명자 조희승 교수)을 (주)아이티스테이션에 선급금 4천만원에 특허권을 양도하고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센터가 보유한 핵심기술과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도입 의지, 전북대 R&D전략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의 중개협력 등 산·학·관 협력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다.



전북대학교 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센터장 조기환)가 19일 보안솔루션 분야의 선도기업인 (주)아이티스테이션과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안전에 소요되는 원천기술과 중소기업주도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미래형 선도적 기술력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설립된 공공안전정보기술연구센터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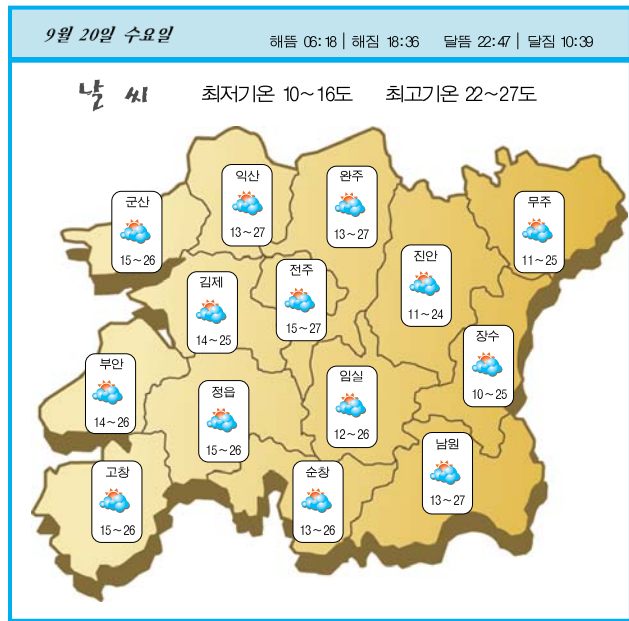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안전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응용서비스 기술개발 등 기업 수요기반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보탬이 되고 있다.

(주)아이티스테이션 이장규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향후 연구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협력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전북 글로벌 IP 스타트업인 (주)아이티스테이션은 정보보호분야의 독자적 기술력을 가진 SW전문기업으로 CC인증과 ISMS인증, GS인증과 40여개의 지식재산권 보유 등 정보보호 보안솔루션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2백여개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자체 개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아이티스테이션은 이달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연구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전북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연구센터와 협력하여 공공안전을 위한 보안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대 '건지인문학'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건지인문학'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삼과대학 부설 산업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논문집 '이태경상저널'은 등재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다.

건지인문학은 2009년 창간된 학술지로, 2014년 등재 후보지에 선정된 이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인문학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학술 연구 논문을 발굴을 위해 전북대와 연구교류를 맺고 있는 국내외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인문학 분야 다양한 주제(역사, 언어, 문화, 인문사회 등)의 학술논문 약 100여 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기간행물로서 매년 상반기(6



월), 하반기(12월), 총 두 차례에 걸쳐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논문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전문성 있는 편집위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여 전국적 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중국, 대만, 러시아, 스페인 등 국외 연구자들의 논문을 함께 실어 국제적 학술지로서 차별화를 모색했다.

전주 원도심, 문화·예술로 수(手) 놓는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올 연말까지 작가·청소년 함께하는 프로젝트 진행

전주시가 지역 수공예 작가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수(手)놓기 프로젝트를 통해 원도심을 문화와 예술로 수를 놓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 공방 등 전주 원도심 현장에서 수공예 작가들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수(手)놓기 프로젝트인 '한 수(手) 배워볼까' (이하 '한 수 배워볼까')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점과 점을 이어 수를 놓는 것처럼 원도심의 수공예 작가와 청소년들이 이어 새로운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원도심민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한 수 배워볼까' 프로그램은 크게 작가 네트워크인 '원도심에 수를 놓

다'와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열다' 등 2가지 흐름으로 진행된다.

먼저, 작가 네트워크는 원도심 내에서 활동하면서도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을 연결하는 것으로, 9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1차례씩 워크숍과 공방부터 네트워크 모임 등 4차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공동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작가 네트워크 이후 작가들이 작가의 분야와 원도심의 콘텐츠를 활용해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진행해 결과 전시까지 하는 여정으로 오는 11월부터 매주 1~2회씩 총 8회~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원도심에 작업공간이 있고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과 진로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작가뿐 아니라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까지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사회경제적지원단 관계자는 "한 수 배워볼까"를 시작으로 원도심민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핸드메이드 작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의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쇠퇴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5년 국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모해 선정됐으며, 지난해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국비 9억원 등 총사업비 182억원이 투입되는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운영 혁신학교 공모

전라북도교육청이 2018년 운영 혁신학교 공모에 들어간다.

19일 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설명회를 갖고 심사를 거쳐 15개 내외의 혁신학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10개 내외의 학교는 공모형태로, 대규모 학교나 인근 학교급별 혁신학교와 연계하는 혁신학교 벨트화사업 일환으로 5개 가량을 지정형으로, 총 15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한다.

도교육청은 ▲학교혁신문화와 시스템 실현을 위한 노력 ▲초교와 연계 가능한 중·고등학교 및 대규모 학교 ▲문화예술체육 활성화하는 중학교 등을 심사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내달 13일까지 혁신학교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학교 방문 면담 평가를 거쳐 11월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도내 혁신학교는 총 159개 학교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로컬에듀 공감토크' 완주 13개 읍·면 찾아간다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은 학부모들에게 관내 중·고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8일 구이면을 시작으로 완주 13개 읍·면을 직접 찾아간다.

시간은 총 100분으로 로컬에듀의 개념 및 방향,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완주 중·고교 교육과정 및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완주교육장과 완주군수가 지역주민, 학부모들과 함께 지역교육에 대하여 치열하게 토론한다.

이번 로컬에듀 공감토크는 교육지원청과 완주군이 완주군 각 지역으로 찾아가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

만나 지역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진로·진학의 강점을 소개하고 로컬에듀에 대한 지역 전체의 공유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아울러 교육장과 군수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완주교육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완주군 교육정책과 혁신교육트루트 예산 운용에 반영해 학교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번 공감토크는 18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총 12회에 걸쳐 읍면별로 실시된다. 약 45일간에 걸쳐 12개 지역에서 54개 학교의 학부모 및 지역주민 2천여명이 참여한다.

한국해상풍력(주)가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2월 정부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60MW)의 해상공사를 2017년 5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 환경친화적 공사시행
- 해상풍력수산업공존실증
-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 국내해상풍력기술개발

- 청정 전력생산 및 온실가스 감축
 - 연간 175GWh생산, CO₂ 8만톤 감축
- 고부가가치 융복합 신산업 육성
 - 탄소섬유 117톤 적용 등 핵심 신소재 활용
-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여
-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실증단계)
 - 건설시 500명/3년, 운영시 50명/20년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상발전소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

[2단계(시범단지)는 400MW로 국내해상풍력기를 대상으로 개발 예정]

Homepage : <http://www.kowp.co.kr>

추진경과

- 2010년 11월 정부 해상풍력추진 로드맵 발표
- 2011년 11월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법령 제결 (정부, 전라남도, 9개 사업추진기관)
- 2015년 10월 EPC 계약체결 (터빈 및 기초 : 두중, 현대건설, 계통연계설비 : 한전)
- 2016년 2월 전원개발사업 승인(산업통상자원부)
- 2017년 5월 해상발전소 해상설치공사 착수